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

프롬타뉴 왕국의 사람들이 부정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삼킬 때면 반드시 언급하는 속담.

태어난 이래로 스무 해가 넘는 동안 그 말을 수 없이 써오면서도 나는 몰랐다.

내 죽음이 악마가 들렸다는 추문과 함께 그리도 갑작스럽게 눈앞에 닥쳐올 줄은.

이것은 에로페 대륙 최고의 성기사 가문에서 태어난 한 공자.

로빈 이렌스 카스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뒤틀린 이야기이며.

어찌하여 내가 악마추종자란 오명을 쓰고 죽어야 했는

지 곱씹어보는 와신상담의 이야기이다.

* * *

어린 시절의 나는 '카스텔의 어린 천재'라 불렸다.

비록 막내여서 내 위로 여덟 명의 쟁쟁한 실력을 가진 형 누나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보다도 어린 나이인 여섯 살에 이미 여신의 의지에 감응해 신성력을 싹 틔웠고.

누구도 내가 뛰어난 성기사가 되리란 것을 믿어 의심

치 않았다.

그러나 일찍 피어난 꽃이 일찍 진다 했던가.

내 재능은 고작 십 년을 반짝이다 하루 아침에 촛불처럼 꺼져 사라져버렸다.

그때가 내 나이 열 여섯 살.

기사서임식을 1년 앞둔 그 중대한 시기에 내 검에는
더이상 신성력이 깃들지 않게 됐다.

처음엔 잠깐 컨디션이 안 좋은 탓이라며 애써 현실을
도피했다.

아무리 밤을 세워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

지난 10년간 '카스텔의 어린 천재'라 불리며 같이 수련하는 형과 누나들도 가볍게 압도하던 나였다.

그런데 어쩌서 하루 아침에 여신의 권능은 내 몸을 떠나버린 것일까.

그 후로도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해 술과 여색을 탐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냈다.

공작가의 혈통을 가진 덕에 기사 작위는 얻었으나 단 한 번의 구마전에도 나서보지 못한 반쪽짜리 성기사인 채로.

기사서임을 받고 3년이 지나 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카스텔의 수치'라고 불렀다.

카스텔 성은 물론이요 성을 품고있는 카스텔 공작령의 도시 생사르트에서도 '로빈 이렌느 카스텔'이라 하면 악명이 높았다.

병신같은 개 망나니 새끼.

내 앞에서는 굵신굵신거리며 비굴한 미소를 짓던 술집의 점원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땐 나를 그렇게 불렀다.

지나보니 신성력을 쓰지 못하는 성기사였던 나는 팔다리 하나 없는 병신이나 다를바 없이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채였으니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녘다.

물론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된 난 그 술집을 엉망으로 망가트리려 놓아 응당의 대가는 치르게 해줬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날 향한 사람들의 혀 차는 소리가 아니라 어째서 저 망할 여신은 내게 빌려줬던 권능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갔는 지 생각하면 말이다.

얼굴에 대고 소리치며 따지고 싶어도 그 망할 것은 신
이라서 찾아가 따져물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애진즉에 내 기도에는 아무런 화답도 없
던 것이 그 여신이란 작자였다.

고작해야 스물 여섯 해라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실로 무섭다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었다.

천재라 불리며 살아갔던 그 십 년과.

병신같은 개 망나니 새끼라 불리며 되는 대로 살았던
그 십 년이.

공평하게 똑같은 속도로 그저 흘러갔다.

그렇게 지나간 순간들은 내가 잘될 때는 매 순간이 향
기로운 천사의 축복이었고.

내가 삶의 구렁텅이를 기어갈 때는 추악한 악마의 농
간과도 같았다.

참으로 길었던 그 동굴의 끝에서 내가 오랜 만에 검을
다시 쥐어 보았던 날이 있었다.

내가 살아본 마지막 나이, 스물 여섯에 일어난 일이며.

그날 내가 본 것을 지금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꺼내 쥘 검에 다시 서렸던 희고 아름다운 빛을
뿜는 신성력의 자태를.

그 일이 있었던 건 생사르트의 환락가에서 열린 노름

판에서 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어머니가 남긴 값비싼 반지를 몰래 헐값에 전당포에 맡기고 가져온 은화자루를 쥐고 앉은 자리에서.

고작 두 시간만에 모든 돈을 끌어버리고 화가 나 탁자에 댄다 꽃은 그 단검에 눈부시게 밝은 신성력이 깃들었다.

상황은 참 비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내 눈은 희망으로 번뜩였다.

십 년 만에 저 망할 여신이 번덕을 부려 빼앗아갔던 권능을 되돌려준 것이라면...

다시 검을 잡아볼만 했으니까.

허나 그로부터 3일 뒤.

나는 죽었다.

누군가 신성청에 나를 악마추종자라 밀고했고 거짓말처럼 이미 모든 증거는 다 준비되어 있었다.

오로지 나만을 향하는 무수한 화살표로 점철된 채.

정말 우습게도 내가 여섯살 때부터 이미 악마에 들러 있었고 그때 내가 보인 재능도 악마가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도 그 중에 있었다.

이단심판관이 내게 그 문서를 내밀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분했지만 굳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

축축한 지하의 돌바닥에서 3일 내 잠도 못자고 고문 기술자에게 시달리다보면 애초에 그런 것들은 다 시시

하고 부질없어진다.

그저 바랬던 것은 죽음 뿐.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고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영원한 고통보다는 죽음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을 때.

자비로운 신성청의 이단심판관은 여신 엘라이안의 이름으로 내게 그것을 선물했다.

타오르는 장작 더미 위에서 나는 울다가 웃다가 끝내는 비명을 질러대다 한 줌 잣더미가 되었다.

그것 참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다.

* * *

정신이 드니 내가 처한 상황은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
는 속담을 쓰기 딱 알맞았다.

눈을 뜨니 낮이 익은, 원래보다 훨씬 더 높아보이는
천장.

의식은 있어도 아직 가눌 수 없는 머리와 양증맞은 팔
다리.

이건 또 신선한 방식의 낭패였다.

제기랄. 어째서... 이런 갓난아기의 몸이 된 거냐.

마치 나팔수의 옆에 서있는 듯 아기의 울음소리가 골
을 뒤흔든다.

그 때문에 온 정신이 사납던 때.

"아이고 우리 로빈 도련님~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정말~"

우연히 낮익음이 연속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
다.

내 시야를 다 채운 낮익은 유모의 얼굴을 보며 나는
경악했다.

설마... 진짜 카스텔 성이었냐 여기... 그럼 나는...

아무래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가진 몸으로.

또 로빈 이렌스 카스텔이 된 거라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제법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점일까.

한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란 감정을 다시 상상해봤다.

이를 떼면 6살 때 부터 이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드는 상상.

"유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로빈은 내가 볼
테니까."

"네 부인. 감사합니다."

따뜻한 천에 싸여 유모의 거친 손에서 어머니의 백옥
같은 손으로 옮겨가는 어린 나의 몸.

어느 순간 잊고 말았던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생생하
게 웃고 있었다.

그 보석같은 보라색 눈동자가 빛나는 환한 미소로 내
시야는 짝 들어찼다.

"우리 로빈. 악몽이라도 꿔나요? 어찌 그리 우는 것이
에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까르르 웃기 시작하는 이 어린
몸.

그러나 나 역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모진 길을 잠시
잊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리 로빈은 장차 위대한 성기사가 될 아이지요. 그
렇지요? 로빈?"

어머니의 한마디에 나는 생각했다.

지난 생의 마지막에 보았던 그 선명한 신성력의 빛을.

그것은 분명 처음과 마찬가지로 눈부시게 빛났었다.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다는 듯 말이다.

어째서 나는 반쪽짜리 성기사가 되어야만 했을까. 하루아침에.

만일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것이 신이라면.

내 전생이 반쪽짜리가 된 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지난 삶에서 이미 찍어둔 운명의 여러 분기점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 * *

다시 한 번 겪는 어린 시절은 대체로 지루했지만 처음 보는 일들도 많아 그럭저럭 신선했다.

물론 다 큰 정신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존재로 몇 년을 살다보니 그 자체로 스트레스도 꽤나 많았다만은.

그래도 다시 주어진 삶이라는데 감사했다.

점점 나는 처음 다시 태어났을 때의 혼란과 긴장감보다는 아무 고민없이 다른 어른들에게 의탁할 수 있는 이 짧은 시절을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내 새로운 인생의 첫번째 분기점이 찾아왔다.

조찬자리에서 올린 식전 기도에서 여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에게만.

'카스텔의 공자, 로빈이여. 이번 삶은 만족스러운가?'

역시... 여신은 알고 있었다. 나의 회귀를.

'당연하지요. 그대의 회귀는 내 작품이었으니까.'

이 모든 게 엘라이안의 계획이었다니.

이런 얘기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다.

이제와서 다시 제게 기회를 주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엘라이안님.

'저는 그렇게 매정한 신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죽음을 맞은 그대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는 것 뿐이지요.'

나는 엘라이안이 빌려줬던 권능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갔던 일이 떠올랐지만 일단은 잠자코 있었다.

저 속모를 신을 비난하는 대신 나는 여섯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외쳤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엘라이안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훗. 그대에게 이번 삶은 즐거운 여행이 되길...'

축복인 듯 아리송한 여신의 음성을 뒤로하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두 번째 인생 첫 식전기도를 혼자힘으로 마친 나를 대

견하단 표정으로 지켜보는 카스텔 사람들의 얼굴이 낮설다.

아직도 나의 뇌리엔 내가 천재라 불릴 땐 나를 시기하던 그들의 눈빛이.

내가 개망나니라 불릴 땐 나를 경멸하며 까내리던 그들의 입술이 여전히 깊게 박혀있었으므로.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곤 하나.

나는 그들의 성장이력과 보이는 이면에 감춰둔 성격들을 너무나 잘 안다.

이 카스텔 성 안에서 진실은 언제나 밝은 빛의 뒤편, 어두운 방과 그늘진 모퉁이에 있음을.

난 아직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신의 의지와 감응하게 된 것을 별로 티 내지 않으려 신경썼다.

지난 생에서는 이때 엘라이안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걸 시작으로 천재소릴 듣기 시작했었지...

오늘 내가 신성력을 개화시켰다는 걸 이 카스텔 가문의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만약 전생의 첫 번째 분기점에서부터 내가 악수를 두고만 것이라면.

이번 생엔 다른 수를 뒀어야했으니까.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본래 마법사였던 내 어머니가 그동안 출산으로 중단했던 자신의 연구를 위해 돌아오지 않을 긴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배웅나온 내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없어도 꼭 훌륭한 성기사로 자라나겠다는 약속.

전생의 나는 아마 이 날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던 거 같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이별이었기에 나는 최대한 울음을 참으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꼭... 훌륭하게 살아남아서 이 카스텔을 손에 넣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던 날의 그 약속을 떠올리며.

나는 권좌에 앉은 가주와 이제는 성을 떠난 내 어머니를 제외한 세명의 부인.

그리고 여덟 명의 손위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끔찍한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나의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그 어미들이 각자의 생각을 숨긴 채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따라 싱긋 웃었다.

세상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 순수하게.

그러자 가주가 호탕하게 너털웃음을 짓는다.

"하하하하하! 우리 로빈이 이제 다 컸구나! 혼자 엘라 이안님께 식전기도까지 드리고 말이다!"

옆에 앉은 정실부인이 가주의 웃음에 영혼없이 맞장구를 치고.

"그러게요 아유~ 어쩔 이렇게 예쁜 애가 있을까요."

정실부인의 옆에 앉은 둘째부인은 엄한 소리를 해댄다.

"그런데 어째서 그 어미는 이리도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렇게 버려두고... 아차차. 애가 듣겠네요. 호호호."

마지막 넷째부인이 한 마디를 덧붙이며 어머니의 빈 의자를 힐끗 쳐다본다.

"아니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로빈 저 아이에겐 참 안 됐지만요."

그렇다.

이번 생에도 카스텔은 내가 알던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나였다.

더이상 그들이 알던 내가 아니다.

- 1. 너희가 알던 내가 아니다, 끝 -